



최 석 원 변호사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모방의 미학

20여 년 전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칭하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지식정보의 빈부가 권력이동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제3의 물결은 원시적 노동과 굴뚝으로 부를 축적하던 제1, 2의 물결을 타고 넘어 올 대변혁의 물결이라 규정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그 위대한 예언자의 주술에 걸린 것처럼 거대한 정보의 물결이 일렁이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정보의 이동은 너무나 빨라서 오늘 아침에 발간된 하버드대학의 신간 서적이 그날 오후 서울의 대학생들에게 강의될 정도이고, 상해의 싱바커카페(星巴克.스타벅스의 중국어 번역)가 미국의 스타벅스(starbucks)를 모방했다하여 피소되었다는 인터넷 뉴스를 바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은 정보의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범람과 흐름은 우리에게 모방의 미학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범람과 섬광 같은 흐름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모방의 미학을 가르쳐주고 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일까? 모방이 발명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모방은 필요악일까?

아마도 필요(needs)보다는 모방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자신의 과거기술을 바탕으로 창안한 새로운 발명도 윤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 발명의 모티브는 모방에서 온 것이고, 제3자의 기술을 모티브로 새로운 발명을 하였다면 그것 또한 모방이 되는 것이다.

정보의 범람과 초고속 흐름은 권력의 향방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여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므로 금기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그래서 특허법도 특허발명이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칙 위에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고도(高度)한 자연법칙의 발명이라면 모방여부를 묻지 않고 발명특허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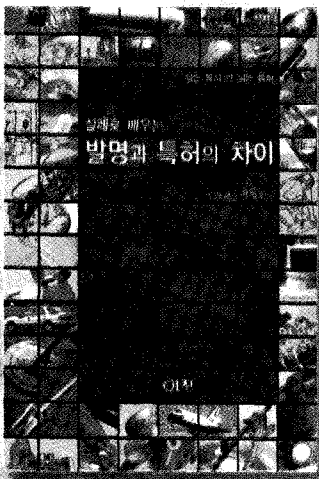
기초산업의 첨병인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가가치가 낮은 굴뚝산업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임을 부인할 수 없고 당연히 산업인프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지식정보를 지배하고 모방을 미학으로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용이 있는 성장을 구가하면서 지루한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진화론적 명제를 받아들이고 "모방의 미학"을 사훈으로 내걸 때 제3의 물결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지식재산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Post-it" 이라는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기업, "쓰리엠(3M)" 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발특2004/8

신간안내



실례로 배우는 발명과 특허의 차이
 저자/이병길, 여익주 공저
 출판사/도서출판 이치
 정가/9천원
 쪽수/184P
 전화/02-994-0071

누구나 발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특허를 받을 순 없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다. 발명에서도, 발명이 구슬이라면 특허는 보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꿰는 방법을 몰라 돈 되는 아이디어를 놓치고 만다. 어떻게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까?

이 책은 나의 발명이 특허로 이어지는 미묘한 차이 2%를 보여주는 책이다. 맥반석 분말이 함유된 미용비누 제조방법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기존 병마개 안쪽에 톱니형 돌기를 만들어 발호가스가 용기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게 하는 곡주용기용 마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유 등, 일반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어떻게 특허에서 성공하고 못 하는지 실례를 통해 보여준다.

변리사와 전자공학과 교수인 저자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명의 여러 요소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다양한 실례를 통해 특허의 숨은 노하우를 정리하였다.

이 책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특허출원 과정과 그 방법을 정리하여, 책 한 권으로 아이디어 정리에 특허출원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있다.